

그 여름, 바닷가의 추억



김 양 평 역
일본 이야기

올여름은 유난히도 더운 것 같다.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보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는 것 같다. 이럴 때 이더위를 피해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생기고 행복해진다.

일본에서 생활하던 그날도 무더운 어느 여름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아보았다. 일본은 섬나라이고 해안선이 길어 전국에 수백 곳의 해수욕장이 있다. 그런데 도쿄 도심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수욕장을 찾기는 쉽지가 않았다. 도쿄만(東京灣)을 끼고 있고 오다이바(お台場)에는 산책이 가능한 모래사장도 있지만 평범하게 수영을 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과 바다에서 수영하거나 물놀이를 즐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한두 시간 이동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경로로 찾아본 결과, 도쿄 도심 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치바현의 구주쿠리하마(九十九里浜)에 있는 가타카이 해수욕장(片貝海水浴場), 서쪽으로는 가나가와현의

가타세니시하마·구게누마 해수욕장(片瀬西浜・鵜沼海水浴場)이 도쿄 주민들이 즐겨 찾는 해수욕장이었다.

구주쿠리하마는 66Km에 걸쳐 이어진 긴 모래사장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길게 펼쳐진 모래사장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으나, 결정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접근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당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전철을 세 번 환승하고 나서 다시 버스로 갈아타야 했으며, 버스 정거장에서 바닷가까지 도보로 15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그에 비해 구게누마 해수욕장은 전철을 한 번만 환승하면 되고, 역에서도 걸어서 5분 이내에 바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다. 주말 아침 일찍 옷차리와 갈아입을 옷을 챙겨 아이들과 함께 전철에 몸을 실었다. 점차 바다가 가까워지면서 열차 속 승객들이 대부분 우리와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도쿄 도심을 벗어난 지 한 시간 만에 가타세에노시마(片瀬江ノ島)역에 도착했다. 역을 나서자, 바다 냄새가 물씬 풍겨왔고 조금 걷다 보니 바로 드넓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해수욕장은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우선 모래사장의

모래 색이 내가 아는 그 색깔이 아니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백사장이 아니라 검은빛이 감도는 짙은 회색의 모래사장이었다. 분명 오다이바에서는 밝은색의 모래사장을 보았는데, 이곳의 모래는 전혀 다른 색이었다. 나중에 찾아보니 일본의 해수욕장 중에는 오래전 화산 활동 영향 등으로 짙은 색깔의 모래사장이 드물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비슷한 모양의 가건물(海の家; 우미노이에(바다의 집))들이 바닷가에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있는데 여기에서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일본의 동네 축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메뉴들을 팔고 있었다.

여름철 바닷가는 또 다른 축제장과 같았다. 그리고 해수욕장 주변 가게에서는 무겁지 않고 적당한 가격에 썬베드를 판매하고 있었다. 방문객들은 직접 챙겨온 돗자리를 펼쳐거나 구입한 썬베드를 원하는 곳에 놓고 바다를 즐기고 있었다. 익숙한 한국의 바닷가와는 여러 가지가 다른 모습이였다.

하지만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뛰어나다며 웃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게 낮설었던 에노시마의 짙은 모래사장은 우리 가족의 이름다운 여름의 한 장면으로 남았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마트 장보기 캠페인이 남긴 숙제



김 지 수 접
신 원 선
(유통&라이프부)

고물가와 이커머스의 거센 공세 속에서 대형마트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사비(조합비)를 털어 카트를 끌고 매장으로 나섰다. 한국 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최근 단행한 '이마트 장보기 캠페인'이다. 겉보기엔 조합원 복지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파고들면 이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이 행사의 기저에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이미 온라인으로 향했는데, 왜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만 묶어두느냐”는 뼈아픈 항의가 깊게 배어 있다.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매장을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사비까지 털어 노력

하고 있으니, 이제는 정부가 낡은 규제를 풀어달라”고 외치는 현장의 절박한 속내가 담겨 있다.

실제로 노조는 장보기 캠페인과 함께 대형마트를 둘러싼 기존 유통 규제의 재검토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장보기 캠페인과 유통 규제 비판은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기존 규제로 인해 오프라인 점포가 묶여 있는 사이,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온라인 플랫폼만 반사이익을 누리며 몸집을 불렀다. 그 결과가 대형마트 시장 점유율 8.5% 추락과 잇따르는 점포 폐점, 그리고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목을 조여오는 고용 불안이다. 노조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써서 매출을 올려도,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히면 결국 일자리는 사라진다”고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비자들이 다시 매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부터 카트를 끌어야 한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솔선수범은 그래서 무겁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장보기에 나서 캠페인 당일 이마트 전체 매출을 26%나 끌어올리는 저력을 보였다. 스스로 생존 능력을 증명해 보인 셈이다.

노동자를 무리하게 쥐어짜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현장 노동자들이 이토록 치열하게 지키려 애쓰는 오프라인 점포가, 변화한 유통 생태계 속에서 다른 채널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과감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카트를 끈 마트 노조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진짜 숙제다.

/tree6834@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2일 (음 6월 30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큰 업체와 계약이 성사됩니다. **60년생** 지금 하는 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72년생** 사랑과 우정, 가족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84년생** 원하는 것 중 작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49년생 여행은 좋으나 북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61년생** 비노기 계통의 질병이 보입니다. **73년생**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보여주세요. **85년생** 매사 동료와 함께 의논하세요.



50년생 어렵더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62년생** 뜻밖의 인연이 도움을 줍니다. **74년생** 남자는 순탄하나 여자는 곤란합니다. **86년생**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51년생 공익을 앞세워 생각하고 실천합니다. **63년생** 현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하세요. **75년생** 별다른 어려움 없이 거래가 성립됩니다. **87년생**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으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52년생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마세요. **64년생** 금전 거래는 금물입니다. **76년생** 혼사가 있겠으나 상대방이 까다로워 고민입니다. **88년생** 쓸데없는 접대는 낭비일 뿐입니다.



53년생 몸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심란합니다. **65년생** 중독독을 조심하세요. **77년생** 고비를 잘 넘기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89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4년생 별 것 아니라고 지나치면 큰 병이 됩니다. **66년생** 욕심을 줄이면 만사형통합니다. **78년생**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보강함이 상책입니다. **90년생** 미루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55년생 체념하지 말고 견디며 나아가 때입니다. **67년생** 다툼을 주의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79년생** 어렵겠지만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세요. **91년생** 동료와의 기쁜 만남이 있습니다.



56년생 돈은 들어오나 반환받길입니다. **68년생** 부적절한 일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됩니다. **80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92년생** 남녀간의 문제를 조심하세요.



57년생 서두르지 마세요. **69년생**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일을 착수하세요. **81년생** 친구와 동료간에 모임이나 회식을 가지게 됩니다. **93년생** 감정대로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58년생 큰 성공에 욕심을 부리면 크게 전략할 위험이 있습니다. **70년생** 이미 이룬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82년생** 불운을 잘 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94년생** 여행을 떠나세요.



59년생 친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71년생** 마음의 격정을 주변의 친한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83년생** 소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합니다. **95년생**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김상회의四季

대웅

대웅은 큰 영웅, 즉 진정한 영웅을 뜻한다. 세속적 의미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나 나라를 구한 호걸들을 영웅이라 칭하며 그 공적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경우 대웅이라 말하지만, 불가에서는 자신의 욕망이나 탐진치 등 마음의 부정적 번뇌를 이겨낸 사람들을 영웅이라 칭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진리를 깨달아 알고 얻은 자, 그를 일러 대웅이라 칭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노자(老子)도 했다. “승인자유력(勝人者有力) 자승자강(自勝者強)”, 즉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지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라고 한 것이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니 석가모니부처님의 대웅 지론과도 통하는 말씀 아닌가? 그래서 석가모니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다.

즉 욕망과 번뇌를 이겨낸 석가모니부처님을 모신 곳을 ‘대웅전’이라고 한다. 사찰에 따라 대웅전을 대웅보전(大雄寶殿)으로 더욱 큰 존경의 의미를 담으려는 뜻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 고대 한반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절의 중심건물을 ‘금당(金堂)’이라고 불렀는데, 그만큼 고귀한 곳을 모신 곳이라 귀한 자리라는 뜻이다. 석가모니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경우에는 대웅전 대신 적멸보궁이라 칭한다. 적멸보궁은 부처의 진짜 몸을 모신 곳이므로 불상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뜻에서 불상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5대 적멸보궁이 있다.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모셔온 사리를 양산 통도사,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설악산 봉정암, 영월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 다섯 곳 적멸보궁에 모셨다. 자장율사는 신라의 국사였으므로 당시 신라의 영토였던 곳의 사찰에 불상 대신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함으로써 직접 부처님이 계신 것으로 본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7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7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한한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퍼즐 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9 7 9 2 6 2 9 1

9 9 2 8 7 1 2 6 8

6 1 2 2 9 8 8 9 7

9 9 8 1 6 2 8 7 2

7 2 1 8 2 9 6 8 9

8 2 6 9 8 7 1 2 9

1 8 8 2 9 9 7 2 6

2 6 9 7 8 2 9 1 8

2 7 9 6 1 8 9 8 2

2 2 6 8 7 8 1 9 9

7 8 9 1 2 9 2 8 6

9 8 1 6 2 9 2 8 7

1 9 2 2 9 8 6 7 8

6 9 8 7 1 2 9 2 8

2 7 8 9 8 6 9 1 2

8 6 7 9 9 2 8 2 1

8 1 2 2 6 7 8 9 9

9 2 9 8 8 1 7 6 2